

## 재생산 미래주의와 ‘미혼모’의 몸-자리

소영현\*

### 요약

이 글에서는 ‘미혼모’의 몸에 주목하여 여성에 대한 담론과 관심이 확대되던 1990년대 전후의 임신-출산하는 몸을 중심으로 한 여성 관련 논의를 재고해 보았다.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환기하는 말이며, 그 존재 가치와 규정이 가변적인 말인 ‘미혼모’를 둘러싼 규정적 맥락성과 경계의 유동성을 고려하면서, 이 글에서는 비가시화된 존재인 ‘미혼모’를 지속적으로 비가시화하는 결절을 살피고자 하였다. ‘미혼모’는 시간간적 맥락을 포함한 임신-출산하는 여성의 여러 존재 방식과의 연관성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1990년대 전후의 신문 매체와 박완서와 은희경의 소설로 우회하면서 ‘미혼모’가 임신-출산하는 여성(의 몸)의 유동적인 일면들, 분리와 단절이 불가능한 그 일면들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접면의 논의를 통해 비가시화된 존재로서의 ‘미혼모’를 소수자로서의 ‘미혼모’와 재생산 미래주의에 기반한 가족론 차원에서 좌표화해 보았다. 분절적이고 개별적으로 다루어지는 여성의 몸과 여성 노동의 긴밀한 연관성을 거시적 차원에서 살필 수 있는 인식적 시야를 마련해 보았다.

주제어: ‘미혼모’, 임신-출산하는 몸, 재생산 미래주의, ‘대물림(la transmission)’, 남아선호사상

\* 한국문학번역원 교수

목차

1. 임신-출산하는 여성의 몸과 '미혼모'의 비가시성 재고
2. '미혼모'의 몸-자리와 노동으로서의 재생산
3. '미혼모'에서 '미혼'으로: 재생산 미래주의와 '미혼모' 공포
4. '대물림'과 아동 가치의 성별 위계화
5. 결론을 대신하여

## 1. 임신-출산하는 여성의 몸과 '미혼모'의 비가시성 재고

정소영 감독의 영화 <미워도 다시 한번>(1968)에서 혼자 서울살이를 한 남자를 사랑했던 유치원 교사 '혜영'은 결혼을 꿈꾸었으나 시골에서 상경한 가족을 통해 그가 기혼자임을 알고 남자를 떠나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운 여성으로, '사생아'를 낳은 '미혼모'로 비난받았다. 통속성 강한 멜로 드라마였음에도 이 영화가 기억할 만한 관객 동원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 신파성 때문만은 아닐 것인데,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에 따라 2012년 형법에서 삭제된 '혼인빙자간음죄'에 해당할 법한 사건들이 드물지 않던 시절이었음을 환기하자면, (아들-)혼외자를 두고 벌어지는 가족 내 갈등에 공감하는 관객이 당시에 적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가족 내 갈등의 대표적 모티프로 인식되지만, (아들-)혼외자의 문제가 1960년대만의 일은 아니며, 시대 한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에서 혼외 출생률은 낮은 편이다. 결혼제도 바깥의 임신과 출산을 도덕적으로 쉽게 허용하지 않는 사회로서, '미혼모'가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sup>1)</sup> 더불어 2000년대 이후로 혼외 임신과 출산 이후 양육이 점차 용인됨에 따라<sup>2)</sup> (대개

1) 권희정, 『이것은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기록이다』, 날, 2024, 32면.

대중문화에서의 변화라고 해야 하지만 '미혼'인 채로 임신과 출산을 한 여성이라는 말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넘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하고 양육하는 여성을 가리키게 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입양 대신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의 증가 추세는 '미혼모'에서 '싱글맘'이라는 용어 표현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제도와 정책 차원에서도 양육 지원을 포함한 미혼모의 인권 및 미혼모 가족 지원이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에서 서서히 낮아지던 출산율에 대한 경각심이 뚜렷해진 2000년대 이후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은 혹은 낮아지는) 출산율을 '문제로서' 다루고자 하는 관점에서 지속되고 있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미혼모'는 여전히 비가시화된 존재이자 영역이었다. '양육 미혼모'를 가족 형태 가운데 하나로 인정(려)는 쪽으로의 인식 변화가 있었으며, '미혼모' 자신이 '비정상적 모성'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고 있음에도, '미혼모'를 둘러싼 사회적 낙인이 일소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낮은 출산율은 '모성'에 대한 관심 자체를 협소화해왔다. 다른 한편으로, '미혼모'는 임신-출산하는 여성의 몸에 주목하는 관점에서, 1990년대 이후로 생물학적 결정론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몸'의 물질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통찰을 마련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sup>3)</sup> 유사-가족, 대안-가족을 포함한 가족에 대한 다변화된 논의 속에서 재편되고 있다. 드라마화되기도 한 웹툰 <남남> (정영룡, 2019-2022)이 단적으로 보여주듯, 새로운 '엄마'가 새로운 '가족'과 함께 등장하고 있다. 제도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가족을 구성하는 핵심 원리로서의 친밀성

2) 미혼모 상담 사업, 미혼모 출산 보호 시설 사업, 미혼모 사회복귀(직업교육) 사업을 지칭했던 미혼모 보호 사업은 2003년 미혼모 양육지원 사업이 시작되면서 공식적으로 미혼모자 공동 생활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3) 이현재, 「신유물론의 렌즈로 읽은 그로스의 육체유물론: 사회구성주의와 생물학적 결정론을 넘어서는 '몸'을 향하여」, 김남이 외, 『신유물론 페미니즘』, 도서출판 여이연, 2023, 51면.

에 대한 관심과 함께, 혈연과 결혼 관계 너머의 ‘가족’과 그것을 구성할 권리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sup>4)</sup>

‘미혼모’라는 용어는 1960년대 초중반 사회복지 연구자의 논문에서 ‘Unwed Mother/Unmarried Mother’의 번역어로 소개되었고, 1970년대 전후로 학술 용어에서 점차 사회적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다. 초기 혼혈아를 출산한 여성을 가리키던 말이 점차 법률혼에 기초한 결혼제도 바깥에서 임신-출산한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 그 외연이 확대되었다.<sup>5)</sup> 어머니의 자격이 혼인 여부에 의해 판정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그러나 당연하게도 용어의 등장과 함께 ‘미혼모’가 생겨난 것은 아니며, 용어의 전환과 함께 혼외 임신-출산한 ‘미혼모’가 사라지지도 않는다.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과정은 결혼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나 결혼 없이 임신과 출산을 통해 어머니가 된 여성을 가리키는 이 말에는 여러 측면의 윤리적 단죄의 의미가 담겨 있고, 그 의미는 대개 부정적인 것으로 사회적 낙인의 효과를 발휘한다. 임신-출산하는 여성의 몸, 이성애 중심의 결혼제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지속되어 온 역사에서 (따지자면 이러한 조건 바깥의 역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유사 이래) ‘미혼모’의 존재가 상시적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혼모’는 내내 비가시화된 채로 존재했다고 해야 한다.

4) 김순남,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 봄, 2022.

5) 신필식, 「1970년대 신문기사를 통해 본 한국 미혼모 보호사업과 미혼모의 사회적 재현 변화 연구: 경제적 모성에서 배제된 여성으로」, 『한국여성학』 33(3), 한국여성학회, 2017, 324면.; 권희정, 『미혼모의 탄생』, 안토니아스, 2019, 26, 121-129, 177-181면. 1955년 3월부터 1957년 7월까지 미국 미네소타대학 사회사업학과에서 수학한 후 돌아온 백근칠, 하상락, 김학목에 의해 1958년 서울대학교 사회사업학과가 창설된 후, 1961년 서울대학교에서 발행된 『사회사업학보』 창간호에 실린 「Unmarried Mother에 대한 고찰」(장인협)에서 ‘Unmarried Mother’는 법적 혼인 제도를 거치지 않고 출산한 여성으로 정의되었다. 권희정은 문제를 ‘모성’을 중심으로 성찰하면서, ‘미혼모’를 결혼제도 바깥에서 임신-출산하고 이후 입양으로 인해 모성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거나 결혼제도 바깥에서 양육을 경험하게 되는 어머니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사실, '미혼모'는 젠더 편향을 담지한 말이자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환기하는 말이라는 점에서 교정이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다.<sup>6)</sup> 그 존재의 가치에 대한 규정도 가변적이다. 가령, '미혼모'와 '혼외자'는 방계라고 해야 할 남성 쪽 가족의 구성에 따라 변동적 가치를 갖는 존재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미혼모'는 윤리적으로 훼손된 존재로 치부되기도 하고 때로 임신을 출산으로 연결시켜 지속하지 않을 때 즉 '임신중지'를 선택할 때에는 '불법' 의료 시술에 가담한 공모자가 되기도 했다. 임신과 함께 변화되고 또 변화될 가능성에 놓인 존재라는 차원에서 '미혼모' 규정을 둘러싼 이러한 가변성은 '미혼모'가 고정적으로 확정해서 규정할 수 있는 특정한 정체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킨다. 이에 따라 '미혼모'를 둘러싼 복잡한 논의 맥락과 경계의 유동성을 고려하면서, 이 글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온당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비가시화된 존재인 '미혼모'를 소수자의 자리로 정위시키고 아울러 비가시화를 지속시키는 결절들을 살피고자 한다.<sup>7)</sup> '미혼모'가 임신-출산하는 여성(의 몸)의 유동적인 일면들, 분리와 단절이 불가능한 그 일면들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것이며, 이를 통해 그 접면의 논의로 우회하면서 비가시화된 존재로서

6) '여대생'이나 '유모차'가 그러하듯, 좀더 중립적인 의미의 '미혼모'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겠으나, 그 낙인의 면모를 충분히 살피기 위해 '미혼모'를 둘러싼 맥락적 결절을 살피고자 한다.

7) 이에 대해서는 황지성의 장애여성 시설화 문제에서 방법론적 통찰을 얻었음을 밝혀둔다. 1960년 이후 장애여성의 시설화 과정을 추적하며 장애 여성의 몸이 어떻게 시설로 배치되어 왔으며 그 효과는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한 논문 「장애여성의 시설화 과정에 관한 연구-서울 시립부녀보호지도소 사례를 중심으로, 1961-2010」(서울대 대학원, 2023.)에서 여성학 연구자 황지성은 페미니스트 범죄학자들의 주장에 근거하여, 가난한 여성의 몸이 시설화의 표적이 되는 동시에 바로 그런 이유로 비가시화되어 왔음을 짚는다. 그에 따르면, 장애와 젠더라는 상이한 힘들이 중첩된 자리에 놓인 교차적 주체로서의 장애 여성이 이성에 규범적 가족주의와 이를 중심으로 복지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시설화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재생산과 돌봄의 책임이 대체로 여성에게 전가되는 사회 현실이 돌봄의 대상인 장애 여성을 이중적으로 비가시화한다는 것이다.

의 ‘미혼모’를 소수자로서의 ‘미혼모’와 재생산 미래주의에 기반한 가족론 차원에서 좌표화하고자 한다. 분절적이고 개별적으로 다루어지는 여성의 몸과 여성 노동의 긴밀한 연관성을 거시적 차원에서 살필 수 있는 인식적 시야를 열어보고자 한다.<sup>8)</sup>

## 2. ‘미혼모’의 몸-자리와 노동으로서의 재생산

방법론 차원에서 덧붙이자면, ‘미혼모’의 비가시성에 대한 이 글의 관심이 ‘미혼모’는 누구이며, 그들은 왜 ‘미혼모’가 되었는가와 같은 ‘미혼모’라는 존재 자체를 가시화하는 일로 초점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혼모’를 정체성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가 ‘미혼모’의 규정적 유동성과 그것을 야기하는 권력관계의 배치 등에 가닿기 어렵게 한다고 보고, 이 글에서는 ‘미혼모’가 아니라 이른바 ‘미혼모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미혼모’에 사회적 낙인을 덧씌우고 ‘미혼모’를 정상 가족 바깥에 놓인 ‘문제적·비정상적’ 존재로 만드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미혼모’를 지속적으로 등장하게 하는 사회의 추동력, 특히 그것을 떠받치는 사회적 합의의 관념 가운데 하나인 재생산 미래주의와의 관련 속에서 ‘미혼모’ 문제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미혼모’가 정체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며 정체화할 수 있는 특정 존재인 것만도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 보면, 이로부터 비로소 임신-출산하는 여자들 가운데 왜 누군가는 ‘미혼모’로 불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시작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혼모’의 여부를 결정하는 경계와 그 접면들을 살피는 일이 좀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대개 비가시적인 하위주체의 젠더적·섹슈얼리티적 면모가 부각될 때, 언제나 그와 결부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

---

8) 이는 궁극적으로는 재생산과 돌봄을 노동의 논의로 끌어안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다.

들, 가령 노동과 같은 비-젠더적·비-섹슈얼리티적 요소는 은폐되는 경향이 있다. 그 은폐되고 누락된 지점과 경위를 살피기 위해서는, 임신-출산하는 여성의 몸을 둘러싼 논의를 예각화하고 세분화하는 방식과는 정반대로 거시적인 시야에서 자연화된 인식을 해체하고 통합적으로 재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미혼모'를 둘러싼 맥락적 결절의 연결성을 파악하기 위해 그 기반에 놓인 사회적 지향을 영문학자 리 에델만(Lee Edelman)의 사유를 빌려 '재생산 미래주의'로 칭하고, 그것이 정치적인 것의 성격을 결정하는 사회적 이념일 뿐만 아니라 도덕의 이면에서 임신-출산하는 여성의 몸을 배치하고 규정하며 조절하는 자본의 힘이기도 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재생산 미래주의와의 관련 속에서 '미혼모' 문제를 포착해보고자 한다.

관련하여 덧붙이자면, '미혼모'를 둘러싼 논의를 담론과 재현물을 통해 살필 수밖에 없다 해도, 그것을 곧바로 '미혼모' 재현의 차원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 매체를 통해 '미혼모' 관련 논의는 1960년대 중반 이후로 거론되기 시작하고 1990년대 전후로 급증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성이 '미혼모' 자체의 증가를 가리키는 지표로 곧바로 인식될 수는 없다. 1990년 선별 '임신중지'가 특히 여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황도과의 소설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2022)가 단적으로 환기하듯, '미혼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사회 인식의 변화는 말할 것도 없이 과학 기술의 발달까지를 포함한다. 가령, 가족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70년대 이후로 30대 이상 연령의 출산율이 점차 감소하는 와중에, '임신중지' 비율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1990년 전후로 50%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sup>9)</sup> 10대 '미혼모'가 증가한다는 논의가 1980년대 중반 이후로 꾸준히 늘어나지만,<sup>10)</sup> 그것은 10대 이후 연령의 출

9) 김승권 외, 「초저출산 국가의 출산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187-188면.

10) 「10대 未婚母 늘어난다」, 『조선일보』 1986.9.5: 「칠부지 未婚母 급증」, 『경향신문』

산율 자체가 낮아진 경향과 맞물린 현상이기도 하다. ‘미혼모’의 문제를 특정한 시대의 문제로만 보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문학을 통해 그 성격을 온전히 해명하기도 어려운 것은 이러한 복합적 사정과 맞물려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 ‘미혼모’에 관한 담론적 논의를 좀더 강조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이유라면, 동시에 여성 서사의 시대인 1990년대 전후로 임신-출산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논의를 보여주는 소설에 주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1990년대 전후의 시기에 등장한 대표적 여성 서사인 『새의 선물』에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사정과 연관되어 있다. 임신-출산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인식이 여성 서사의 이름으로 비로소 시작된 1990년대의 인식적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혼모’라는 범주를 둘러싸고 있는 임신-출산하는 여성의 몸의 다양한 현실태를 은희경의 소설 『새의 선물』(1995)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sup>11)</sup>

1990년대 대표적인 여성 성장소설인 은희경의 『새의 선물』은, 오정희의 소설이 앞서 날카롭게 보여준 바 있기도 한 바, 몸을 중심으로 여성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여성의 성장 문제를 성찰한다. 여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설 속에서 그것은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몸 즉 성적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2)</sup> 여기서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은, 여

1986.12.16; 「未婚母 10대가 25%」, 『동아일보』 1987.12.3; 「未婚母 10대 比重 높아진다」, 『경향신문』 1992.8.15; 「10대 未婚母, 누구 責任인가」, 『경향신문』 1992.8.16; 「미혼모 36%가 10대」, 『조선일보』 1992.12.8; 「10대 미혼모 실상」, 『조선일보』 1994.3.20.

11) 기우 삼아 덧붙여두자면, 1990년대 전후로 ‘미혼모’에 대한 논의는 변화를 겪게 되며, 2000년대 전후로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된다. 이 글의 관심은 ‘미혼모’의 재현이 아니라 ‘미혼모’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되는 장면을 통해 살피는 ‘미혼모’ 담론의 사회적 기능에 가깝다. 이는 이 글에서 다루는 은희경과 박완서의 소설이 1990년대 전후라는 등장 시기를 좀더 고려하면서 선택되었으며, 그런 까닭에 그 서사적 분석과는 다른 차원의 기능 분석을 하게 되었음을 밝혀둔다.

12) 『새의 선물』 속 가회동 갑나무집 공동체는 여성들이 이끄는 공동체로, 생계와 하루하루의 일상이 여성들에 의해 꾸러지는 공간이다. 12세 여성 화자의 눈으로 본 그곳은 ‘성장’한 여성들이 각기 다른 인생 주기를 살아가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공동체는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여

성의 성장이 곧바로 여성의 주체화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거기에 미묘한 간극이 지속한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근대적 주체로서의 '개인' 즉 몸과 정신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에서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 그것과는 정반대의 존재가 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감나무집 공동체에는 여성들의 생애주기의 스펙트럼이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존재 방식의 사례들로서 펼쳐져 있지만, 그것 이외의 존재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곳은 여성-몸인 존재의 비극이 세대를 거듭 하며 반복되는 악몽 같은 무시간성의 공간이기도 하다. 따지자면, 화자인 진희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의 내면을 감추고 분열적 자아를 가진 채 성장하게 되는 것은, 산후우울증을 앓다가 가출했으며 병원에 격리되었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엄마 때문이다. 양장점 보조로 일하던 미스리가 진희 삼촌을 좋아하지만 결국 주인집의 깃돈까지 들고 도망가는 것도 (남자를 통한) 계급상승을 꿈꾸는 야심이 실제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식모로 있다가 주인집 아저씨의 후배에게 강제로 순결을 잃은 후, 자신의 인생에 닥친 불운을 체념하듯 받아들이고 사는 순분-광진테라 아줌마에게 임신과 출산은 그녀 자신의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니다. 불임성 있고 부지런하며 상냥한 성품임에도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던 그녀가 단 한번 그 삶에서 탈출하기 위해 용기를 내지만, 끝내 다른 삶을 향해 용기를 발휘했던 발걸음을 집으로 되돌렸던 것은 젓먹이를 두고 떠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성의 생애주기와 존재 방식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1970년대 전후의 세대 풍경을 통해 보여 주며, 여성의 성장이 결과적으로 이성애 중심의 가부장제를 지탱하는 성적 존재가 되는 것임을, 그것 이외의 존재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 곳임을, 개별 여성들의 비극적 삶을 통해 보여준다. 심진경, 「1990년대 은희경 소설의 섹슈얼리티」, 『세계문학비교연구』 72, 세계문학비교연구학회, 2020, 37-57면.; 김예니, 「1990년대 여성작가의 섹슈얼리티 재현방식 연구-은희경과 진경린의 초기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56, 한국여성문학학회, 2022, 375-410면.

감나무집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임신과 출산하는 몸으로서의 여성의 생애주기는 따지자면 크게 다르지 않다. “순덕이라는 좀 모자라는 애”(137면)는 어른들 말로는 순덕이 어머니가 순덕이를 가졌을 때 뱃속의 것을 때려고 무슨 약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했고, 순덕이 어머니가 남몰래 애를 때려고 했던 것은 순덕이 아버지의 애가 아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연애-결혼에 대한 판타지에 사로잡혔다가 현실로 내동댕이쳐진 이모는 첫사랑에 실패하고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 연애의 부산물을 처리하듯 ‘임신중지’를 하고 이른바 ‘성장’하게 된다. 23살에 직업군인인 남편과 결혼을 한 후 채 일년도 안되어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으며 유복자인 장군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장군이 엄마의 임신에 대한 처리는 이모와는 다르다. 결혼했으나 임신한 채 남편을 잃은 그녀는 출산을 선택한다. 『새의 선물』 속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각기 다른 선택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경우든 “여자 팔자가 뒤옹박 팔자”(67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다.

감나무집 공동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에 관한 다양한 선택과 결단을 내리지만, 임신과 출산을 그저 몸 안의 장기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기능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임신과 출산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해도,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은 결과적으로는 임신-출산하는 ‘몸’이 ‘되’는 것에 더 가깝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에 관한 한 즉 자신의 몸을 두고 전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여성들은 그 자신의 생애주기를 살면서, 동시에 다른 생명을 생산하는 생산 주기를 살게 된다. 이 주기는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여성의 몸을 매개로 하지만, 하나로 일치되지 않으며, 이성애 중심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차원의 논의로만 포착되지도 않는다. 젠더적·섹슈얼리티적 논의 이면에 놓인 그 다른 한 갈래의 주기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노동 개념에 의거할 필요가 있다.

인류학자 새라 블래퍼 허디(Sarah Blaffer Hirdy)가 말했듯이, 일하는 어머니는 유구한 인류의 역사에서 새로운 존재가 아니다. 인류의 등장 이후

로 혹은 인간이 등장하기 전 수백만 년 동안 영장류 어미들은 생산과 재생산의 삶을 결합해왔다. 어머니 역할과 일의 균형을 조율하는 일은 언제나 타협을 요청했다.<sup>13)</sup> '임신중지'가 역사적으로 언제나 같은 정도로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금기시되지는 않았는데, 가정 단위에서 가부장제적 재산상속 문제, 빈곤, 질병 등을 이유로 자녀의 수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sup>14)</sup> 가족계획사업을 통해 임신과 출산이 자본과 경제의 문제인 동시에 국가권력의 구축-재편과 직접 연관된 정치의 문제임을 짚은 사회학자 조은주가 강조한 바 있듯이, 실제로 농촌 여성에 빈번했던 영아살해를 비서구 사회에서 나타나는 봉건주의 잔재가 아니라 농민 가구의 여성과 남성의 사회경제적 삶에서 아이가 차지하는 역할과 의미, 농촌 가족의 토대와 결속의 기반, 남성 중심적 세대 간 계약 등에 대한 고려 속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도 그래서이다.<sup>15)</sup> 이는 임신-출산에 관한 여성들의 선택이 여성의 몸에서 자발적으로 발현된다는 '모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그 선택을 영아 유기나 살해까지도 임신-출산하는 '몸'으로서의 여성이 매번 해야 하는 타협이자 판단 행위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말하자면 그 선택이나 행위는 유전자적 현상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한 개체가 다른 개체를 위해 생산과 재생산을 둘러싼 비용을 어떻게 감수하거나 분배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다.<sup>16)</sup>

요컨대, 임신-출산을 둘러싼 여성들의 다양한 선택은 노동, 그 가운데에서도 재생산 노동의 맥락에서 살펴야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러 선택과 입장을 갖는 여성들에 대한 논의는 여성의 몫"으로 치부되면서도 "보상도 없이 여성의 한평생에 영향을

13) Sarah Blaffer Hirdy, 황희선 역, 『어머니의 탄생』, 사이언스북스, 2010, 189면.

14) 류민희, 「낙태의 범죄화와 가족계획 정책의 그림자」, 성과재생산포럼 기획,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후마니타스, 2018, 139면.

15) 조은주, 『가족과 통치』, 창비, 2018, 148면.

16) Sarah Blaffer Hirdy, 황희선 역, 『어머니의 탄생』, 사이언스북스, 2010, 567면.

주는 노동” 즉 “다른 인간 존재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노동”의 문제가 된다. ‘재생산 노동’이라는 범주 설정 안에서 임신과 출산, 양육과 돌봄, ‘임신중지’까지를 포함한 일들을 단속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행위 차원에서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17)</sup> 무엇보다 일련의 노동(혹은 그 순간들)이 그것을 둘러싼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화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적 재정위를 통해 『새의 선물』의 여성들을 가부장제의 폭력성에 희생된 피해자의 자리에서 임신과 출산에 관한 ‘타협과 선택’을 해나가는 존재들, 즉 개입적 행위성의 면모를 보여주는 존재들로 독해할 수 있게 된다. ‘미혼모’가 규정적 정체성이라기보다 가변적인 접선을 통해 만들어지는 ‘영역’ 즉 임신-출산하는 여성의 몸으로 살게 되는 여러 생애주기들의 접면에 놓인 일종의 영역이자 위치임을 은희경의 『새의 선물』 속 여성 군상들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3. ‘미혼모’에서 ‘미혼’으로: 재생산 미래주의와 ‘미혼모’ 공포

임신-출산하는 몸으로서의 여성이 재생산 노동과 돌봄 노동 사이에서 선택과 타협을 해왔다면, 그런 선택과 타협을 강제하는 사회구조적 무의식은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가. 재생산 미래주의로 압축될 수 있는 이 힘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우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한편으로 부정의한 존재로,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를 입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요약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든 국가적 차원에

---

17) 페미니스트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따(Mariarosa Dalla Costa)는 빈번해지는 자궁절제술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생명의 재생산 기제를 자본화하고 생명을 실험실에서 생산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폭력성을 비판한다. Mariarosa Dalla Costa 편, 박지순 역, 『세번째 전장, 자궁절제술』, 갈무리, 2024, 24면.

서든 여성의 몸에 개입해야 하고 여성의 몸을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표면적인 이질성에도 근본에서 다르지 않다. 사회에서 '미혼모'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회복지 차원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당겨 말하자면, 그 관점은 사회에서 '미혼모'를 '미혼'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요청으로 구현된다고 하겠다.<sup>18)</sup>

사회복지용어대백과사전에 의하면, “미혼모는 미혼여성이 아이를 출산해 모친이 되는 것을 말하나, 보통 미성년자의 경우”를 가리킨다고 정의된다. 그 정의에는 '미혼모' 발생의 원인과 '미혼모' 문제의 해법에 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덧붙여 있는데, 그 내용이 꽤 흥미롭다. 거기에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것의 문제 및 해법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성 가치관의 타락과 성개방 등으로 인한 미혼모 발생이 우리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미혼모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982년부터 기업체 근로여성과接客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규모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혼모를 보호하는 시설은 전국에 10개 정도 있으며, 이들을 수용하여 생계보호를 행하는 한편 직업보도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도와주고 있다.<sup>19)</sup>

짧은 설명 내에서 성 가치관의 타락과 성의 개방이 '미혼모'의 급격한 발생의 원인이라는 판단과 함께 여성 노동자나接客업소 종사자가 '미혼

18) 권희정, 『미혼모의 탄생』, 안토니아스, 2019, 172-173면. '미혼모'에 대한 이러한 방식의 이해법은 권희정이 지적한 바 있듯이, '미혼모'를 치유의 대상인 '병적 모성'으로 여기면서 아이를 무자녀 중산층 가정에 보내는 방식으로 '미혼모'를 '미혼' 즉 정상인으로 치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정의 '정상성'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보았던 미국식 사회사업의 영향으로 서구 '메이비 스룹 시대'의 실천적 지식에서 연원했다.

19) 사회복지사전, 2009. [https://www.welfare24.net/ab-welfare\\_dic](https://www.welfare24.net/ab-welfare_dic)

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적 편견이 반복된다. '미혼모'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믿는 동시에 사회에서 격리해서 시설에 수용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이성애 규범에 충실한 정상 가정 바깥의 '위험한 여성'에 대한 인식과 해법이기도 한 이러한 이해는 바로 그런 이유로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라기보다 사회에서 배제해야 할 존재에 대한 이해법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각기 다르게 호명되었던 바, '미혼모'는 1960년대 이후로 '미혼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초창기부터 국내 입양을 포함한 해외 입양과 연관된 자리에서 거론되었다.<sup>20)</sup> 구체적으로 사회사업의 정책과 실행 차원에서 이러한 관점은 좀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한국전쟁 이후 긴급 구호시설을 통한 부녀보호 사업에서 시작된 한국의 부녀정책이 부녀보호 사업과 부녀지도 사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는데, 2000년대까지도 부녀행정 차원에서 '미혼모'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다. '미혼모' 보호사업이 대체로 '미혼모'를 다시 '미혼'의 상태로 되돌리는 데 사업의 목적이 정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양육지원사업이 본

20) 1990년대 시골에서 성인용품 방문판매에 나선 여성들의 성장을 다룬 드라마 〈정숙한 세일즈〉(2024.10.12.-11.17. JTBC)에서 하위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로 '미혼모'와 아동 납치, 해외 불법 입양에 관한 이야기가 다루어진다. 서울에서 온 형사 김도현은 해외 '입양아'로, 친생모를 찾기 위해 작은 단서들이 이끄는 한 시골 마을로 와서 과거의 한 화재 사건을 조사하던 중 영유아 납치 사건을 접하게 되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친생모를 만나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 여성 범죄의 전형을 보여주는 이 사건의 범인은 가난으로 아픈 아이를 잃은 '어머니'로, 그녀는 이후로 가난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납치해서 돈을 받고 해외 입양을 보냈던 것으로 밝혀진다. 범인은 입양 담론이 내세웠던 '구원' 내러티브를 알리바이로 사용하며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한다. 아이들의 사진을 지하 벽에 붙여두고 아이의 안녕을 30년간 기원해 왔으며 '아이들을 구원했다'는 자기 기만적 진술을 반복하지만, 사건의 진모를 밝히려는 형사를 감금하고 살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녀는 그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드라마는 아이를 잃은 어머니를 아동 유괴와 '매매'의 당사자로 등장시킴으로써, 가족의 반대로 이루어지 못한 사랑의 결실인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미혼모'와 '유괴된'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고 구원한다. 본고의 관심사 속에서 보자면 '가난한 어머니'가 아이를 잃고 아이를 유괴하는 존재로 그려지는 것에 좀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격화되기 이전까지 미혼모 보호사업은 출산을 보호하고 상담을 하여 출산한 영아를 입양시키고 직업교육을 통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sup>21)</sup>

1967년부터 한국 내 고아와 기아들을 한국 가정에 입양시키는 일을 사업으로 벌여온 한국기독교양자회가 ‘철없는 미혼모’의 친권 포기 상담 지도를 많이 하던 때는 1970년 전반기이다. ‘미혼모’에 대한 논의는 거의 동시에 ‘입양에 대한 논의와 중첩되어 이뤄져 왔다.’<sup>22)</sup> ‘미혼모’ 사업의 방향성이 ‘미혼모가 출산한 아이들을 쉽게 입양하게 하는 쪽으로 설정된 것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을 통해 ‘미혼모’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 해법 역시 문제였다. 양자 모두 ‘미혼모’라는 영역이 왜 지속되는지를 질문하지 않은 채 ‘미혼모’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을 궁극적인 ‘해법’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영아 유기나 ‘미혼모’의 아이를 양육하며 해외 입양을 알선하던 기관(천사의 집)의 화제로 모두 ‘미혼모’의 아이였던 14명의 영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해결안 논의로 ‘미혼모’ 예방이 거론될 정도로 ‘미혼모’의 존재 자체가 문제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sup>23)</sup>

21) 1962년 국내 요보호 아동의 국내 입양을 시작했던 개혁신교회(세계기독교개혁신교회 한국지부) 내 조직인 양자회는 1968년 미혼모 상담사업을 도입했고, 1974년 개혁신교회는 양자회를 홀트아동복지회와 합병한다. 이후로 미혼모 상담사업은 해외입양 기관인 한국아동양호회(현 대한사회복지회), 홀트씨해외양자회(현 홀트아동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한국기독교십자군연맹(현 동방사회복지회)에 의해 확대 시행되었다. 신필식, 「1970년대 신문기사를 통해 본 한국 미혼모 보호사업과 미혼모의 사회적 재현 변화 연구: 경제적 모성에서 배제된 여성으로」, 『한국여성학』 33(3), 한국여성학회, 2017, 330-335면.

22) 「私生兒 入養의 길」, 『동아일보』 1970.3.17.

23) 「해외입양 위탁소 ‘천사의 집’에 불, 갓난아기 14명 절명」, 『조선일보』 1975.3.13. <미혼모아카이빙과권익옹호연구소> 아카이빙 참조. [https://www.umi4aa.org/?page\\_id=297&board\\_name=board\\_001&search\\_field=fn\\_tag&search\\_text=%EC%82%AC%EA%B1%B4&vid=83](https://www.umi4aa.org/?page_id=297&board_name=board_001&search_field=fn_tag&search_text=%EC%82%AC%EA%B1%B4&vid=83) <미혼모아카이빙과권익옹호연구소> (소장: 권희정)는 ‘미혼모’를 복지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역사적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함으로써 미혼모에 대한 새로운 담론과 지식을 생산하고 그들이 처한 현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4년 만들어진 비영리 법인

수출자유지역으로 각종 공장이 밀집해 있는 마산시에 10대 미혼모(未婚母)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12일 마산시 부녀아동계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작년 마산 시내에서 발생한 기아(棄兒) 수는 1백 13명인데 이중 10대 미혼처녀출산이 85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이 여공 식모 여학생 등으로 모두 20대 미만의 소녀들이다./ 이들이 영아를 분만하면 시립영아원 등에서 산모의 신원을 비밀에 부치고 영아만을 기아로 보호하다가 양자를 알선해주고 있다./ 10대 미혼모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녀들이 모두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낮은 학력을 가진 공장의 여공(女工)들인데 농촌에서 일자리를 구해 도시로 나와 2-3명이 자취생활을 하고 있다.<sup>24)</sup>

1970년대 ‘미혼모’ 논의가 ‘철모르는 여공’이나 도덕적으로 해이한 ‘가정부’의 ‘무책임한’ 출산과 영유아 유기로 가시화되었던 점에서<sup>25)</sup> 확인할 수 있듯이, 당대의 ‘위험한 여성’과 ‘미혼모’의 자리는 겹쳐 있었다. 이는 ‘미혼모’를 사회에서 보이지 않게 하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이것이 곧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었음을 시사한다. 그 인식은 구체적으로는 존재의 흔적을 지우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만들고 실제로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태어난 아이를 ‘없애는’ 일이거나 태어나지 않게 하는 일이었다. 말하자면 입양의 방식으로 또 ‘임신중지’의 방식으로, 임신과 출산 사이의 연결을 끊고, 아이의 흔적을 지우고, 더 나아가 여성의 출산 경험을 지우는 것이 ‘미혼모’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법이었던 것이다.

단체로, 학술활동과 권익옹호 활동을 한다.

24) 「馬山에서만 작년에 85명」, 『조선일보』 1974.1.13.

25) 「늘어난 10대 未婚母-여공에 많아 年次로 保護시설 설치」, 『조선일보』 1974.1.13; 「道德의 貧困, 누가 버린 棄兒들인가」, 『동아일보』 1976.4.6; 「늘어나는 未婚母 相談을 통해 본 靑少年 문제」, 『매일경제』 1976.4.15; 「工業團地 陽地와 陰地의 새風俗圖 (6) 구로공단」, 『동아일보』 1978.4.5.

여성의 결혼 적령기가 20대 초반이었음을 환기하자면, 10대 '미혼모'의 증가를 현재의 수준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따라서 유보적 판단이 요청된다고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당대에 10대 '미혼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관련하여 한국부인회가 주도하여 미혼모 4백 56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서의 내용은 '미혼모'에 대한 논의가 결과적으로 '위험한 여성'에 대한 논의와 겹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

조사대상이 된 이들 미혼모의 연령은 20-24세가 55%(2백 52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15-19세가 24%, 25-30세가 17%, 30세 이상이 4%였다./ 이중 15-24세가 절반을 훨씬 넘는 79%로 미혼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혼모의 학력은 중졸이 34%(1백 53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졸은 30%, 고졸 28%, 그리고 무학과 대학 이상이 각각 4%로 나타났다. 이중 중졸 이하는 전체의 68%로 비교적 학력이 낮은 경우에 미혼모의 발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의 출생지를 보면 중소도시 40%, 농어촌 34%, 대도시 26%였다./ 이들의 생활 근거는 타인의 보조 29%, 내가 벌어서 28%, 양친의 도움으로 22%, 가출 상태여서 막연하다 11%, 그리고 아이 아빠의 도움으로가 10%였다./ 미혼모의 부모에 대해서는 46%가 친부모생존, 22%가 편모, 17%가 부모가 없음, 9%가 편부, 그리고 6%가 계모 또는 계부의 경우였다. 이 같은 비율을 볼 때 절반 이상이 정상이 아닌 가족관계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나이 교육 가정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미루어보아 미혼모는 중소도시나 농어촌 출신이 많고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미혼모가 되었을 때의 직장은 없음(학생도 포함)이 39%, 회사원이 24%로 많았고 여공이 13%, 다방 7%, 이미용원 6%, 가정부 6%, 버스안내원 5%이었다./ 미혼모가 된 이유는 35%가 결혼할 수 없어서, 22%가 학교 때 사귀 남자라 여건이 안맞아, 20%가 상대가 기혼자였기 때문에, 11%가 부

모의 반대로 나타났다.

(…)

자녀양육은 입양처가 44%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내가 기르고 있다도 27%로 나타났고, 이어 부모 11%, 고아원 8%였다.

(…)

미혼모들의 가장 큰 희망은 결혼하고 싶다가 37%로 가장 많았고, 돈 벌어서 아이를 잘 기르고 싶다가 22%였다. 그리고 12%가 아이를 양자로 보내고 싶어하며, 17%는 이대로 그냥 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혼모에 대한 가족이나 사회의 태도는 적대시한다 42%, 죄인 취급한다 26%로, 주위로부터의 심리적, 정서적 압박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6)</sup>

“이중 15-24세가 절반을 훨씬 넘는 79%로 미혼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교적 학력이 낮은 경우에 미혼모의 발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정상이 아닌 가족관계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미혼모는 중소도시나 농어촌 출신이 많고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석들은 자의적 판단에 입각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당대의 결혼 풍속도 등에 견주어 판단해야 할 통계 자료들이 미묘하게 해석적으로 비틀려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해석은 여지없이 계급적으로 중하층이며, 경제적으로 빈곤한 여성이 ‘미혼모’일 가능성을 확증하는 쪽으로 작동한다. 이는 ‘미혼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던 초기부터 반복되던 것으로,<sup>27)</sup> ‘미혼모’ 자체가 낙인이라는 사실을 통계가 아니라 그에 대한 해석을 통해 확증해주고 있

---

26) 『未婚母가 늘고 있다』. 『경향신문』 1982.7.2.

27) 가령, ‘미혼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해왔다. “가정은 거의 모두가 하루, 자녀를 잘 돌보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이다. 이들은 임신이 무언지 피임이나 유산이 무언지도 모르면서 결혼의 약속도 없이 덜컥 임신을 한다. 상대가 임신한 줄 알면 대개 도망간다는 것이다.” 『私生兒 入養의 길』. 『동아일보』 1970.3.17.

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모' 낙인이 차별적 편견에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통계와 그 해석에 남겨져 있기도 하다. 가령, 결혼 없이 출산하게 된 이유가 말 그대로 결혼을 원하지만 할 수 없거나 하지 못했던 경우에 가까워 보인다거나, 이런 상황임에도 대부분의 '미혼모'가 가족이나 사회에서 배척을 받으며 심리적, 정서적 압박을 느껴야 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포착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래도 네가 고약한 여자한테 걸린 것 같다.”

“그렇진 않아요, 어머니. 착실하고 참한 여자예요.”

“또 역성이냐?”

“역성이 아니라요. 고약한 여자만 아이를 배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를 뺀 걸 뭘래는 게 아냐. 그걸 빌미로 너한테 덤터기를 씌우고 네 앞길을 망쳐놓기로 작심을 했으니까 하는 말이지.”

“그것도 어머니 오해십니다. 그런 여자는 아니래두요. 그저 애를 가졌다고만 했지 그걸로 저한테 책임을 지라거나 헐박하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했어요.”<sup>28)</sup>

『여성신문』에 연재했던 박완서의 소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1989)에서 '미혼모' 차문경이 임신 사실을 확인한 것은 연애 끝에 재혼을 약속한 사이였던 김혁주와 헤어진 이후의 일이다.<sup>29)</sup> 차문경의 임신과 출산이 결혼 바깥의 일이 되자, 그녀의 존재 자체가 공적 사적으로 위협하

28) 박완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세계사, 2012, 57면.

29) 물론 따지자면 1990년대의 연애와 결혼 풍속도까지 들추지 않더라도, 연애 끝에 자연스럽게 헤어졌다기보다 그들의 이별은 어머니의 반대를 내세워 “한번 결혼했던 여자를 당신 머느리나 시내전처 소생 아이 새엄마로 받아들여시도록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식의 소극적 태도를 취했던 김혁주의 뜻이었음을 짚어둘 필요는 있을 것이다. 박완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세계사, 2012, 32-33면.

고 부정한 존재가 되며, 심지어 아이를 혼자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인 중학교 교사라는 그녀의 직업조차 그녀를 비난하기 위한 빌미가 되어버린다. “혼자 사는 여자의 방탕한 사생활의 불미스러운 결과에 대한 사적인 책임”(94면)이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대사회적인 책임”(94면)을 물어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낙인은 사라지지 않으며 범위가 확대된다고 해야 하는데, “사생아를 낳아 교직에서 쫓겨났다”(118면)는 소문이 결국 혼자 아이를 키우는 그녀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게 한다. 이는 앞서의 설문에 대한 논의들과는 달리, ‘미혼모’가 학력이나 경제력의 유무와 무관하게 임신-출산하는 여성의 몸에 의해 여성들이 처하게 되는 상태이자 영역임을 말해주는 동시에, 조건과는 무관하게 가족과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로 치부된다는 것을 확인시킨다.

‘미혼모’는 왜 ‘위험한 여성’인가. ‘미혼모’에 대한 차별적 배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왜인가. ‘미혼모’에 낙인이 가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여성에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성윤리를 흔들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 차원의 ‘성도덕의 해이’라는 비판과는 다른 층위의 문제로, ‘미혼모’ 개인에 대한 경계라기보다 사회적 금기에 대한 위반이 만들어내는 ‘감염력’에 대한 경계라고 할 것이다. 말하자면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규율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확인과 함께, ‘통제 불가능한’ 성에 대한 공포가 종종 불러들이는 화법으로서의 ‘물들인다’는 담론은 상상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공포의 표출이다. 성적 금기를 위반한 여성이 자신의 바깥을 ‘물들인다’는 것, 다른 여성들에게도 물들임으로써, 여성들이 성적으로 자유로워질 것이고, 더 많은 혼외 임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식의 규범적 정상성의 형해화에 대한 공포의 반응인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미혼모’ 공포는 ‘미혼모’가 섹슈얼리티와 재생산이 분리되지 않은 채 뒤엉켜 있음을 환기하는 데에서 뚜렷해진다. 노동의 성적 분업이 여성을 재생산 노동에 가뒤편하게 된다는 점에서, 섹슈얼리티와 재생산의 분리 불가능성에 대한 환기는 여성의 노동에 대한 역설적 환기

와 다르지 않다.<sup>30)</sup> 따라서 여공, 식모, 학생 '미혼모'의 유무나 수효와 무관하게 매체에서의 호명과 그에 대한 사회적 반감은 사회가 통제하거나 규율하고자 한 여성이 집 바깥의 여성이었음을 역설한다고 하겠다. 가정을 경계로 한 여성의 배치, 즉 보호할 여성과 위험한 여성의 구분은 경제적 계급을 경계로 한 여성의 배치 즉 '빈곤한 여성을 '위험한' 여성으로 등치시키는 중첩적 작동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문제는 '미혼모'가 아니라 '미혼모'를 그 자리에 놓이게 하는 여러 조건과 맥락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미혼모'는 없다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미혼모' 공포의 특이성은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입장을 막론한 재생산 미래주의적 사회 인식과의 관련 속에서 뚜렷해진다. 재생산만이 미래를 앞서서 이끌 수 있다는 관념인 재생산 미래주의는 이상적 시민의 앞당긴 선취인 대문자 '아이'(Child)만이 국가의 미래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다고 여긴다.<sup>31)</sup> 재생산 미래주의에 입각하면, '미혼모'가 임신-출산한 '아이'에게는 그 '시민'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본다면, 아이를 곧바로 미래가 선-구현된 존재라고 여긴다는 재생산 미래주의는, 실제로는 모든 '아이'가 '미래'는 아니며 '미래'가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역설한다고 하겠다. 사회 차원에서 '미혼모'는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이자 공포를 불러오는 존재인 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미혼모'를 중심으로 보자면, '미혼모'는 재생산 미래주의의 허위성을 폭로할 수 있는 거점적 존재이다. 재생산만이 미래를 앞서서 이끌 수 있다는 관념은 미래를 선취한 채로 아이의 성장을 통해 상상된 미래와 현재 사이의 간극을 채워가고 그러한 지향 속에서 정치적 권력 관계를 형성하게 되지만, 이는 항상 (지연되는 현재의) '진짜' 시민들이 누

30) Silvia Federici, 황성원·김민철 역, 『캘리번과 마녀』, 갈무리, 2011, 120-121면.

31) Lee Edelman, *No Future: Queer Theory and the Death Drive*,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and London, 2004.

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대가를 수반한다. 사회 질서는 이 보편화된 주체, 즉 환상적인 존재로서의 아동을 위해 실제의 현실을 외면한다. ‘미혼모’를 ‘미혼’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그저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규율이거나 성도덕에 입각한 비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행하는 미래주의를 위해 실제 현실을 외면하고 억압하는 자기 기제에 가깝다고 해야 한다. 사회는 정치 제도가 집단적으로 아동을 재생산하도록 강제하는 이 명령을 거부하는 모든 행위를 단지 특정한 사회 질서의 조직에 대한 위협인 것만 아니라 미래주의의 논리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게 된다. ‘미혼모’는 사회 질서 자체에 대한 위협이자 그 허위성을 폭로할 수 있는 치명적 거점이 되는 것이다.<sup>32)</sup>

#### 4. ‘대물림’과 아동 가치의 성별 위계화

박완서의 「그대 아직도 꿈꾸는가」(1989)나 「꿈꾸는 인큐베이터」(『현대문학』 1993년 1월호.)에서 ‘미혼모’는 ‘대물림(la transmission)’의 문제와 함께 다루어진다.<sup>33)</sup>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을 영입하는 방식인 ‘대물림’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에도 사회적 제도이자 현상으로,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역시 사적 의미 이상의 것을 내포한다고 해야 한다. ‘대물림’ 제도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족 제도의 위계적 성격이라

32) Lee Edelman, *No Future: Queer Theory and the Death Drive*,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and London, 2004, p. 11

33)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가 남성(아버지, 남편)과 여성(어머니, 아내)의 관계로 유비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여성 역할을 자본주의 내에서의 억압과 그 바깥에서의 억압 차원에서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이론틀을 마련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 크리스틴 델피(Christine Delphy)는 대를 이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승계 행위를 가리키는 ‘대물림’이 물려주는 대상과 상관없이 승계 행위라는 차원에서 하나의 제도이며 광의의 가족 제도의 일부를 지척한 바 있다. Christine Delphy, 김다봄·이민경 역, 『가부장제의 정치경제학: 제도화된 수령들』, 봄알람, 2023.

고 할 수 있다면, 이 특성은 가족 내의 위계 즉 성의 배치를 통한 위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가족 내 '역할'로 보이는 성의 범주는 실상 사회적 계급과 결합된 복합 범주라고 해야 하며, 따라서 가족 내 성의 위계는 사회적 계급 내 성의 위계이자 계급 내 지위의 가족 형태화<sup>34)</sup>가 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여성 억압이 자본의 논리에 의한 여성 착취와 결합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그 억압의 구조가 재생산 노동을 매개로 한 가족 제도를 통해 세대로 승계되는 것임을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이 '대물림'의 효력에 대한 주목은 생애 정상성에 강박되어 있는 재생산 미래주의의 가족 내 구현 방식을 확인하게 한다고 할 것이다. 자본주의 경계 체제에서 성차별이 살아남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재생산 영역이 가치창조와 착취의 원천임을 인식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문화적 기획에 좀더 주목해야 한다.<sup>35)</sup> 말하자면, 가부장제 질서가 세대에 걸쳐 전수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대물림' 개념을 통해 여성 억압적인 가부장제 질서가 어떻게 사회 구조 안에서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계승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아이를 통해 가족의 미래가 상상될 수 있다는 믿음이 이성애 중심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지탱하는 중요한 이념적 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재생산 미래주의라는 관념 속에서 힘을 얻게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sup>36)</sup> 가족을 재생산의 최소 단위로 여기며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이러한 방식은 성별-계급적 '지위'를 가족 내에 성별 '역할'로 배분함으로써, 가족 단위로 부양자-피부양자 의무나 시민권을 부여한다.<sup>37)</sup> 시민권의 근거가 가족의 외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족 바

34) Christine Delphy, 김다봄·이민경 역, 『가부장제의 정치경제학: 제도화된 수렁들』, 봄알람, 2023, 87면.

35) Silvia Federici, 황성원·김민철 역, 『켈리번과 마녀』, 갈무리, 2011, 20-21면.

36) Lee Edelman, *No Future: Queer Theory and the Death Drive*,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and London, 2004, pp. 6-11

37) <김순남 인터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상가족이 허구'라는 걸 알죠, <페미니스트 저널 일

깎의 존재 즉 ‘미혼모’의 시민권은 쉽게 확보되기 어려운 것이다.

가부장제 질서가 세대에 걸쳐 전수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대물림’ 제도에 주목하자면, 따라서 이때 ‘아이’는 단순한 생물학적 개체가 아니라, 이성애 중심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당화하는 상징이 된다.<sup>38)</sup> 이때 재생산 미래주의를 선취할 아동의 가치가 그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미래를 선구정할 수 있는 상상적 존재로서의 ‘아이’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지탱하게 된다고 할 때, 아이는 결코 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미혼모’가 등장하거나 ‘임신중지’를 다루는 박완서의 소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아이의 성별은 그 아이의 가치를 차별화하는 결정적 요인이자 가족 내 ‘대물림’의 여부를 판정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이는 사회에서 아이의 성별이 가치화되어 있는 동시에 위계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이가 미래라는 신념, 특히 남아가 미래를 선취할 수 있다는 믿음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혼모’의 존재와 나아가 여성의 몸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결정한다고 하겠다.

다» 2019.3.8.

38) 관련하여 『새의 선물』의 임신-출산하는 여성들 가운데에서 장군이 엄마에 대한 서술의 분위기가 여타의 여성들에 대해서와 다르다는 점을 통해 대물림 제도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임신-출산하는 몸이라는 제한성이 불러오는 여성 생애의 비극성이 『새의 선물』 전반에서 강조되는 분위기와 달리, 장군이 엄마는 미묘하게 희화화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약자로서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녀는 장군이 ‘아들’-남성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 존재로 그려지며, 실상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들-장군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그녀는 진회를 두고 “아무리 똑똑하다 어쩌다 해도 결국 계집애들은 거게 계집애더라고요”(『새의 선물』, 41면)라는 식의 여성혐오적 발언을 남발하는 존재로, “남의 비밀에 대해 비열함 쪽으로 반응하는 사람”(『새의 선물』, 53면)으로 그려지는데, 이러한 서술은 이 가족이 아들인 장군이를 통해 부재하는 남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아버지의 권력은 장군이 엄마에게 이양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가족은 환상적으로 봉합된 형태, 말하자면 가부장 지위-역할의 부족분이 (이양된 지위 역할이라는) 점선으로 채워지면서 정상 가족의 외연을 가상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 차원에서 싱글맘 가족으로서 ‘미혼모’의 낙인의 일부를 완전히 떨쳐낼 수 없다. 장군이 엄마가 기피한 성격의 소유자로 그려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 불완전하게 대물림된 권력의 성격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꿈꾸는 인큐베이터」에서 조카의 유치원 재롱잔치에 직장인인 여동생을 대신해 참석했던 화자는 딸만 둘이라는 한 학부모를 만났고, 아들 없어도 불행하지 않은 그에게 매혹되는 동시에 이질감과 불편감을 느끼게 된다. 재롱잔치를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전하기 위해 다시 만난 남자에게 ‘아들 없는’ 삶을 둘러싼 공격적 질문을 거듭하지만, 남녀 구분 없이 인간 존중의 태도를 보여주는 그 남자 앞에서 자신 내부의 은폐된 적의를 확인하게 된다. 화자가 직면하는 이 복합 감정은 결과적으로는 그 자신이 공모하고 있는 여성 혐오와 그것이 이야기하는 내면의 상처를 응시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무엇보다 그 감정들은 화자를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상대 남자의 행복이 “거짓”이라는 궤변적 인식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화자로 하여금 그 “거짓”을 깨부숴야 한다는 정의감에 불타게 한다. 복합감정이 결국 불러오는 것이 죄의식이라면, 공범의식이기도 한 그 죄의식이 환기하는 것은 남아선호사상과 여아살해를 추동하게 하는 동력인 ‘대물림’ 제도이다. 이러한 환기는 그녀로 하여금 “대란 무엇인가”(279면)라는 질문에서 나아가 “후손이면 족하지 왜 반드시 성이어야 되나?”(279면) 즉 왜 ‘대물림’이 ‘성별’과 결합되는가라는 지점에 가닿게 한다.

화자는 아들을 얻은 후에 안하무인이 된다. 소설의 표현에 따르면, “그 일을 성공적으로 저지른 후 공손한 며느리, 착한 올케에서 쌀쌀하고 무도한 여자로 표변했다.”(289면)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대를 이을 아들을 낳음으로써 집안에 당당해졌음의 뒤틀린 표현으로 보이기도 한다. 작가에 의해 아들을 낳으면서 스스로가 “남자가 된 것처럼 당당했”(291면)다고 말해지기도 한다. 그 자신에게 아들은 “후천적인 남성 성기”(291면)에 다름 아닌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에서 안하무인의 태도는 여아살해 범죄의 공범이라는 그녀의 죄의식과 자기혐오의 수동공격적 표현에 가깝다. 남아선호사상은 의료기술의 획기적 발전과 함께 여아살해와 한몸을 이루게 되는데, 전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에서 여아살해는

1980년대 중후반 이후로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포착이기도 한 소설에서 피해자이자 가해자로서 그녀는 화자가 양수 검사 후 여아를 제거하는 동안 증인이자 공범으로 함께 그 자리를 지켰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말할 것도 없이, 무심결에 아들에 대한 열망을 흘리고 무언의 압력을 가한 남편에 대한 적의와 혐오를 이런 방식으로 노골화한 것이다. 그것은 아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그 자리를 거대한 상실이나 부재로 느끼게 하는 남편으로 대변되는 ‘혈연 계보’의 억압적 하중에 대한 적의이며, 동시에 대를 이어 계속되었던 여성들의 공모에 대한 자기혐오와 아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살해되어야 했던 여아들에 대한 애도의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페미니즘 이론서의 직접적 서사화로 읽히기도 하는 이 대목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지점은 「꿈꾸는 인큐베이터」 속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들에 집착하는’ 심층적 이유이다.

시어머니가 부쩍 아들 손자 타령을 하게 된 것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재산가가 되고 나서부터였다. …… 그들시동생 식귀이라도 불러들이겠다는 말이 남편에게 얼마나 위협적이고 모욕적이라는 걸 나는 옆에서 안 느낄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빌딩이 무슨 왕권이나 되는 것처럼 대를 이을 든든한 아들 손자가 없는 집엔 지고 갈지언정 물려주지 않을 뜻을 거듭거듭 강조했다. 대를 잇는다는 건 핏줄도 성도 아니고 결국은 상속권이었다. (297면)

혼외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경우에도 정상 가족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한 미망이 불러오는 비극적 상황에 대면하게 하는 소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가 그러하듯, 여성의 몸은 아이를 키워내는 인큐베이터와 다르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소설 「꿈꾸는 인큐베이터」를 통해서도, 박완서가 강조하는 것은 가부

장제 질서에 쫓겨 있는 여성에 대한 각성의 일갈이며 가부장제 질서에 대한 남김 없는 비판이기도 하지만, 소설이 근본에서 가시화하는 것은 미소지니의 긴 역사와 여성들이 거기에 공모해 온 면모에 더불어 그것이 은폐하고 있는 자본의 논리라고 해야 한다. “대를 잇는다”는 것은 “핏줄도 성도 아니고 결국은 상속권”(297면)이라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사실의 확인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여성의 섹슈얼리티,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윤리적 억압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것인 동시에 경제적인 맥락을 가진 것임을 좀더 분명하게 환기하는 것이라고 하겠다.<sup>39)</sup>

‘미혼모’가 특정한 ‘존재’가 아니라 가변적 ‘영역’임을 정확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1990년대 전후로 ‘미혼모’ 스스로 아이를 키우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담론이 등장하던 시기의 풍경을 환기하는 소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에서 차문경과 그녀의 아들 문혁이 생물학적 아버지인 김혁주 가족에게 큰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은 김혁주 가족이 아들을 통한 ‘대물림’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이다. 김혁주의 재혼 상대인 정애숙이 딸을 낳은 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임신을 위한 정밀검사를 하면서 정애숙의 몸에서 악성종양이 발견되어 자궁절제술을 받게 되는데,<sup>40)</sup> 그 이후로 어머니 황

39) 「꿈꾸는 인큐베이터」에서 화자의 시누이가 전한 덕망 있는 한 교수에 관한 에피소드는 아들에 대한 열망이 한편으로 여아살해와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 혼외자-싱글맘의 문제로 연결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애처가로 소문났던 덕망 있는 한 인사가 아내와 사별한 후 두 명의 딸과 함께 부인을 추억하면서 살지 않을까 기대했으니(말하자면 작가에 의하면 이것이야말로 여성들의 망상에 가까운 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10여 년 전부터 여자가 있었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이미 중학생이라는 사실보다 놀라운 것은 숨겨 놓은 아들로 인해 받은 충격 때문에 그 인사의 부인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에피소드는 임신의 문제가 여성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법적 정당성을 획득했는가와 무관하게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이 생 전체를 뒤흔드는 의미를 갖는 사건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비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40) 실제로 질병으로부터 목숨을 구하는 행운을 얻었음에도 소설에서 자궁절제술을 받은 애숙이 김혁주 가족의 ‘대물림’의 불가능성에 있어 전적인 책임이 있는 존재로 다루어진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실제로 가족 내 일원 가운데 가부장제 질서의 억압에 가장 크게 시달린 이는 애숙이라고 해야 하는데, 소설에서 그녀는 도리어 아들을 가질 수 없다는 ‘열등감’과 한

여사와 함께 김혁주는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문혁을 자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의 노력을 다한다. 정애숙과의 결혼을 앞두고 임신한 그녀를 찾아와, 생물학적 아버지의 반대에도 굳이 아이를 낳겠다면, 그건 김혁주의 “애가 아니라는 증거 아니겠느냐”라든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뉘 앤지 알 게 뭐냐고 시침 뱉 수도 있는 문제”(61면)라는 식으로 고문과 협박을 일삼아 끝내는 그녀로 하여금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이라고 선언하게 했던 폭력적 행위를 떠올리자면, 김혁주 가족의 ‘대물림’에 대한 집착은 후안무치의 그것에 가깝다고 해야 한다.

결국 아이를 두고 소송을 걸어온 아이의 생부는 문경의 경제적 사정을 들어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편다. 김혁주 자신이 아들을 부인했던 편지 덕분에 그녀는 김혁주의 호적에 이름을 올린 아들을 자신이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소설은 이러한 결말을 작지만 소중한 정의의 실현처럼 보이게 한다. 재혼한 부인이 임신·출산할 수 없는 몸이 된 이후에 혼외의 아들을 찾으려 했다는 사실을 환기함으로써 김혁주 가족의 파렴치함에 주목하게 한다.

“돈뿐이나 있어 보이는 사람의 주장을 덮어놓고 동조하는 게 고작 저명인사가 할 짓인가요? 시정잡배와 뭐 다르죠?”

“단단히 화가 났군요. 그렇지만 누가 옳고 그른 걸 판결한 건 아니잖아요. 아이의 장래와 행복을 아주 상식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서 보다 유리한 쪽으로 책임지게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186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조정 절차를 거치는 동

---

가문의 대를 끊어놓았다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하루하루 수척해지는 존재로 그려진다. 가족 내 그녀의 역할이 재생산 노동으로 압축되어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안, 차문경이 조정위원 중 한 사람과 나는 위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 김혁주 가족은 말할 것도 없이 차문경과 재판부까지도 모두가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생산 미래주의를 모두가 함께 강화하고 있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소설 속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그 의사를 궁금해하거나 묻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그려진다. 현실에 존재하는 아이를 지워야만 미래의 아이를 정상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 수 있음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니와, 이러한 미래 구축 방식에 대해 그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바로 '미혼모'의 상시적 존재 가능성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5. 결론을 대신하여

가족 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지는 2000년대 이후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완화되었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낙인 자체가 완화되었다기보다는 낙인을 위한 역설적 범주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졌다고 할 수 있다. 출산율의 감소 추세 속에서 결혼의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을 출산으로 연결하는 선택 자체가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신-출산하는 여성의 몸이 여성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이러한 경향은 적어도 '미혼모'가 '임신중지' 문제와 무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반대로 오히려 어쩌면 '미혼모'는 여성의 몸의 권리와 선택이라는 차원에서 '임신중지' 문제와 반드시 '연결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킨다. 따라서 앞서 확인해 왔듯, 재생산 미래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미혼모'에 대한 논의를 그 재현으로만 한정할 수 없다. '미혼모'에 대한 논의는 분절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이자 영역으로 다룰 수 없으며 시공간적 맥락을 포함한 임신-출산하는 여성

의 여러 존재 방식과의 연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연결적 맥락을 살필 수 있는 통합적 시야를 통해 ‘미혼모’ 문제가 임신·출산하는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한 젠더적·섹슈얼리티적 통제와 그것에 기반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세대적 전수가 숨겨진 이면으로서 자본의 논리 속에서 탄탄히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미혼모’와 출산한 ‘아이’를 도덕적인 위반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 오히려 윤리적 비난을 통해 존재론적으로 고립시킬 때 은폐되는, 거대한 자본의 논리를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미혼모’를 ‘미혼’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회의 자기조절 기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그리고 사적 차원에서 동시적으로 작동한다. 사적인 차원에서 ‘임신중지’를 선택하게 한다면,<sup>41)</sup> 다른 한편으로 출산한 아이의 국내외 입양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sup>42)</sup> ‘미혼모’를 사회에서 격리시켜 시설에 가두거나 직업교육을 통해 사회로 복귀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이 자본의 요청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점은 ‘임신중지’나 ‘입양’ 등의 외피를 쓴 사회의 자기조절 기제의 논리에 의해 여아 ‘선택적’ ‘임신중지’나 ‘합법적’ 아동 매매와 같은, 이른바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연관된 범죄가 범죄라는 인식도 없이 사회에 편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누구도 쉽게 부정하기 어려운 재생산 미래주의에 입각해 ‘미혼모’는 한

41) 이한나, 「1980년대 가족법 개정 투쟁과 박완서의 소설: 박완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34(8),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13-41면.; 김미경, 「낙태 담론과 페미니즘 욕망의 문학적 형상화: 아이형어의 『거울이야기』와 박완서의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을 중심으로」, 『해세연구』 23, 한국해세학회, 2010, 185-202면.; 김미영, 「낙태 서사에 내재된 행복의 폭력성: 박완서의 『꿈꾸는 인큐베이터』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118, 한국언어문학회, 2021, 75-102면.; 양혜원, 「여성 경험의 서사와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 박완서와 공지영의 낙태 서사를 중심으로」, 『한국학』 44(2), 한국학중앙연구원, 2021, 313-348면.

42) 아이의 성별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에서 정상 가족에 편입될 때와 해외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아이의 성별은 그 가치를 달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덧붙여두어야 할 것이다.

편으로는 정상 가족을 중심으로 한 재생산 미래주의를 지속시키기 위한 구성적 외부로 기능하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상 가족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에 의해 아이의 지속적 공급처로 상징된다. '미혼모'와 그 재생산 노동이 아이를 통해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에 의해 뫼비우스의 띠처럼 돌고 돌아 정상가족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한편 혼외 아동의 국내외 '입양'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는 것이다.

요컨대, '미혼모'에 대한 논의를 임신-출산하는 몸에 집중하여 재고하고자 하는 것은,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생물학적, 구성주의적 관점을 가로지르는 '몸'에 대한 인식을 통해, 평가절하되어온 재생산 노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그로스의 문지방으로서의 몸 개념으로 우회하면, 몸은 사적인 것도 공적인 것도 아니며, 자아도 타자도 아닌 것으로, 자연도 문화도 아니며 유전적으로 결정된 것도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틈새가 열린다.<sup>43)</sup> 임신-출산하는 몸에 대한 인식 없이는 '미혼모'의 몸으로 매개되며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결합시키는 문화로서의 '대물림' 제도의 근간에 대한 통찰적 시야를 마련할 수 없는 것이다.

43) 이현재, 「신유물론의 렌즈로 읽은 그로스의 육체유물론: 사회구성주의와 생물학적 결정론을 넘어서는 '몸'을 향하여」, 김남이 외, 『신유물론 페미니즘』, 도서출판 여이연, 2023, 61면.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박완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세계사, 2012.  
박완서, 『꿈꾸는 인큐베이터』, 『엄마의 말씀』, 세계사, 2012.  
은희경, 『새의 선물』, 문학동네, 1995.  
<미혼모아카이빙과권익옹호연구소> <https://www.umi4aa.org>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2. 단행본

- 권희정, 『미혼모의 탄생』, 안토니아스, 2019.  
권희정, 『이것은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기록이다』, 날, 2024.  
김남이 외, 『신유물론 페미니즘』, 도서출판 여이연, 2023.  
김순남,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 봄, 2022.  
성과재생산포럼 기획, 『베를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후마니타스, 2018.  
조은주, 『가족과 통치』, 창비, 2018.  
Christine Delphy, 김다봄·이민경 역, 『가부장제의 정치경제학: 제도화된 수렁들』, 봄알람, 2023.  
Lee Edelman, *No Future: Queer Theory and the Death Drive*,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and London, 2004.  
Mariasosa Dalla Costa 편, 박지순 역, 『세 번째 전장, 자궁절제술』, 갈무리, 2024.  
Sarah Blaffer Hirdy, 황희선 역, 『어머니의 탄생』, 사이언스북스, 2010.

3. 논문

- 구자연, 「낙태와 임신중지 사이를 진동하는 문학: 1971-80년 발표된 오정희, 박완서, 손장순 소설을 중심으로」, 『춘원연구학보』 26, 춘원연구학회, 2023, 335-370면.  
김미경, 「낙태 담론과 페미니즘 욕망의 문학적 형상화: 아이형어의 『거울이야기』와 박완서의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을 중심으로」, 『혜세연구』 23, 한국혜세학회, 2010, 185-202면.  
김미영, 「낙태 서사에 내재된 행복의 폭력성-박완서의 『꿈꾸는 인큐베이터』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118, 한국언어문학회, 2021, 75-102면.

- 김환희 · 이소윤 · 김훈순, 「TV드라마와 젠더담론의 균열과 포섭: 이혼녀와 미혼모의 재현」, 『미디어, 젠더 & 문화』 30(3),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5, 5-40면.
- 박다솜, 「임신중지 서사의 감정 각본 다각화-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의 한국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61, 한국여성문학학회, 2024, 82-105면.
- 박정미, 「쾌락과 공포의 시대」, 『여성학논집』 33(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6, 31-62면.
- 신필식, 「1970년대 신문기사를 통해 본 한국 미혼모 보호사업과 미혼모의 사회적 재현 변화 연구: 경제적 모성에서 배제된 여성으로」, 『한국여성학』 33(3), 한국여성학회, 2017, 323-357면.
- 심진경, 「1990년대 은희경 소설의 섹슈얼리티」, 『세계문학비교연구』 72, 세계문학비교연구학회, 2020, 37-57면.
- 양혜원, 「여성 경험의 서사와 페미니스트 대항-공적 공간: 박완서와 공지영의 낙태 서사를 중심으로」, 『한국학』 44(2), 한국학중앙연구원, 2021, 313-348면.
- 주강원,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에 관한 소고 : 아동의 매매, 밀거래, 아동세탁 등의 아동학대적 관행의 억제를 중심으로」, 『가천법학』 6(3),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77-110면.
- 황지성, 「장애여성의 시설화 과정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부녀보호지도소 사례를 중심으로, 1961-2010」, 서울대 대학원(박사), 2023.
- 〈김순남 인터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상가족이 허구'라는 걸 알죠〉,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2019.3.8.

<Abstract>

## Reproductive Futurism and the Body-Place of the “Unmarried Mother”

So, Young-hyun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rethink the discussion of women centered on the pregnant and childbearing body since the 1990s by focusing more on the body of the ‘unmarried mother’. The term “unmarried mother” is a sexist stereotype, and its value is highly variable. Considering the regulatory contexts and the fluidity of boundaries surrounding the term,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nodes that position and perpetuate the invisibility of “unmarried mother” as minorities. Under the premise that the discussion of “unmarried mother” should be conducted in relation to the multiple ways of being of pregnant and childbearing women, including their spatial and temporal contexts, this article examines the novels of Park Wan-seo and Eun Hee-kyung to confirm that “unmarried mothers” are placed in a relationship with the fluid aspects of pregnant and childbearing women’s bodies, aspects that cannot be separated and disconnected, and coordinates the discussion of “unmarried mothers” as invisible beings with the discussion of “unmarried mothers” and their families as minorities, while detouring to the discussion of the tangential aspects. This opened up a cognitive perspective to examine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women’s bodies and women’s labor at the macro level which is often treated separately and individually.

Key words: unmarried mother, pregnant and birthing bodies, reproductive futurism, la transmission, male fetishism

투 고 일: 2025년 8월 17일

심 사 일: 2025년 9월 10일

게재확정일: 2025년 9월 25일

수정마감일: 2025년 9월 28일